

부활 제 3 주일

기도서 284 면(A해)  
 제1독서: 사 도 2, 14, 22-28  
 제2독서: I 베드 1, 17-21  
 복 음: 루 가 24, 13-35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 강론



## 엠마우스 제자와 함께

### 이 재 후 신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도 근심과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만나는 사람마다 우울한 표정과 근심하는 얼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바라던 기대가 어긋나서, 사랑을 잃어서, 또는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경제불황이라서 사업에 실패해서 등등 슬프다는 독백이요, 대화일 것입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어두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걸 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루가 24, 17)고 물으실때 침울한 얼굴로 절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정이요,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원가의 모습, 경제적인 어둠에 치친 기성 사회인의 모습이요 교회가 사회의 얼 굴이라 할 것입니다. 두 제자의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악인들이 결박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 습니다. 죄악의 세력이 진리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불의가 의를, 미움이 사랑을, 거짓이 참을 죽이는 시대, 폭력이 생명과 인격을, 억압이 자유를 죽여서 무덤 에 매장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오늘이나 그대나 인간 이 사는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의미 는 진리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지 않고 살 아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고 말할 하지만 현실이 그렇 지 않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잠고래 같은 말입니 다. 이때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 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루가 24, 25)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살며,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살고 정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야 정의가 삽니다. 예수께서 부활 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 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 달게 될 때 그들은 영의 눈이 떠져서 죽으시고 다시 살 아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보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붙고 증거 했습니다. 의심도 절망도 사라지고 새 생명과 힘이 넘쳤 습니다. 만남에서 일어난 부활의 기적입니다. 엠마우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화끈한 한 주간 을 살아갑시다. (월명동 주임신부)



## 오 월 에

1. 오월은 참으로 좋은 때이다. 생동감에 넘치는 자연은 이 오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꾸미고, 사람들은 어버 이의 은혜를 기리며 가정이라는 인간의 보금자리를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전세계 교회는 이 좋은 오월에 성모님 께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까지 이 오월의 한 달이니, 참으로 오월은 좋은 때임에 틀림없 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월에 지워버릴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어찌지 못해 가슴아파 하기도 한다.

2. 한국 천주교회는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 식으로 뜨거운 열기에 달아 올라 있다. 거기에다가 교황 성하의 한국 방문은 매스컴들까지 바쁘게 만들어 온통 천주교회의 불을 일게 하고 있다.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어찌보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교황성하의 안전을 위해서 가해지 는 많은 제약들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한다. 또한 경 호에 수고할 많은 분들과 교통의 통제를 받는 서울 시민 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3. 한국 천주교회의 200주년의 새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북적거리는 화끈한 열기도 좋지만, 이제 정말 로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 보며 새로운 내 일을 열어야 한다. 우리 하나 하나가 하느님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한국의 역사안에 새로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 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 의 해를 선포”해야 한다. (루가 4장 18~19절)

4. 이 화창한 오월, 하느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 자. 그리고 민족의 소리에 귀를 열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빌어 주 소서. 아멘.

## 숲 정 이 산책



우리 모두 진실으로...

□교리 해설

### 성 모 성 월

### 103위 한국 순교 성인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원죄가 없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돌아가신 후, 하늘로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 제신 분'으로 받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신자층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 교회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내맡기고 순명하시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을 본받고 공경하며 따르는 것이다.

마리아의 하느님께 대한 순명자세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는 구원되고 성부와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로 동의한 것은 인류의 구원 행위에 동의한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헌신적 사랑이었다.

“마리아는 성인들의 통공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신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교회헌장 62).” 즉 마리아는 끊임없이 구원의 역할을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구로써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셨으나, 이 역할은 구원의 유일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 다만 마리아는 지상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천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특별한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통공에 있어서도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기인하고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합과 일치를 도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 중에 계실 때 성모님과 제자가 비통해 하는 것을 보시고 성모님을 향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성모님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지위를 공포하셨다.

이처럼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5월을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달로 지내야 한다. 참된 신앙에서 성모님의 탁월성을 인정하며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그의 덕행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성하께서는 한국 순교 복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시성 선언을 하신다.

“천주 성삼위의 영광을 위하여, 가톨릭 신앙을 들어놓기 위하여, 또한 신자들이 그리스도다운 생활을 더욱 실천케 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성 베드로, 바오로의 권위로써 심사숙고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청하고 많은 형제 주교들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제 순교 복자 김 대건 신부와 정 하상 신학생과 함께 순교한 모든 복자들을 성인들로 판정하고 선언하며, 온 성교회가 다른 성인들과 함께 이분들을 정성껏 공경하도록 결정하는 동시에, 이분들의 이름을 모든 성인들의 명부에 올리는 바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인이 되시는 분들은 1925년 시복된 79명의 순교자와 1968년에 시복된 24명의 순교자이시다.

한국 순교 성인 103위는 올바른 믿음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증거자였다. 우리는 이분들의 위대한 신앙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윤리와 도덕의 극치를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이분들은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사랑 하는 모든 인류의 사표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순교 성인 103위의 시성식은 한국 교회와 민족의 기쁨인 동시에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쁨이며 영광인 것이다.

지금까지 성인 반열에 오르신 2천3백명은 거의 유럽사 람들이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는 26위의 성인이 나 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단 한 분의 성인도 탄생 하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시성식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사는 세상이 놀랄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성인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방 주교좌에서 일반인들의 여론, 후보자의 서간과 저서 등을 수집, 후보자 생존시의 생애 조사와 기적을 조사하여 서류로 작성→소속 법정의 판사 신부와 소속 교구장의 확인→로마 시성성성 앞으로 제출→시복식 집행(순교자는 기적없이도 되고, 증거자는 두 번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함)→기적 심사위원회에 회부(의사 신학자들로 구성)→시성성성 장관이 심사확인서를 교황님께 상정하여 시성 윤허 요청→교황님은 최종 심사위원회(시성성성 위원회 추기경님들과 교황청 고등 재판소 대법관들로 구성)의 자문을 받아 결정→시성교서 발부→구체적인 시성식 준비→시성식

교황 성하께서 무사히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마 기 환 안 과

원장 : 전문의 마 기환  
장소 : 팔달로변 불새다방 2층  
전화 75-2203  
한 남회(비리시타)

#### 유리피아노교실

서중학교 로타리  
☎ 4-5539  
박 주리아

####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⑤ 5289



### 교황 성하 방한 및

### 순교자 103위 시성식



교황 성하 방한 : 5월 3일~7일

시 성 식 : 5월 6일

### □ 성 클라라 봉쇄수도회 낙성식

—은인들을 초대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고마우신 분들께 감사!

주님의 자애가 넘치신 안배와 공경하올 주교님 이하 모든 신부님들,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물적 도움을 통한 따뜻한 보살피심으로 전주교구에 뿌리를 내린지 3년이 되어가는 성클라라 봉쇄수도회에서는 5월 8일 오전 11시에 박정일 주교님, 김재덕 주교님 그리고 독일의 요셉 스텐플레 주교님의 공동 집전으로 축성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수도원의 내적 성장과 아울러 생활 터전의 완공을 볼 때까지 많은 염려와 관심은 물론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수도가족 모두는 뜨거운 감사의 정을 드리오며 저희의 끊임없는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 교구와 은인들을 위한 사랑의 집을 언젠가 감사롭게 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물적으로 애공을 베풀어 주신 많은 은인들께서 축성식에 참석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주님의 크신 업적을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격한 봉쇄의 생활중에서도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곁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가까이 있으렵니다.

성클라라 봉쇄수도회 가족 일동 드림

### □ 성소주일(13일) 행사

성소주일(13일)을 맞아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직자, 수도자로 불림을 받을 때 교회가 발전하고 사회는 그만큼 밝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해야겠다.

#### 1. 성소자 모임 : 광주 대건신학대학 견학

일시-5월 13일 오전 9시30분, 전주 가톨릭 센터 출발 예정

대상-성소자 모임 회원 및 본당신부 추천자 참가비-1인당 1천원

#### 2. 수도회 행사 : 만남의 시간-오후 2시

①성바로 여자 수도회(전주 바로로 서원)

②작은 자매 전교회(고창 동혜원)

③동정 성모회(이리 성모병원)

④성체회 본원 개방

★ 매월 성소자들을 위한 월모임과 연중 피정이 있음(자세한 것은 교육국에 문의바람)

### □ 김진석 신부 귀국

지난 4월 29일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하셨던 김진석 신부님께서 귀국, 용안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지난 3월 24일 「교구 사목활동과 사목위원회」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요십이(561) 김병오

전주교 200주년미사와 시성식에 사람이너무 모여 숨막혀 죽겠다!

숨막혀 죽지 않기 위해 몸을 위로 틀어 빼 보자

야- 교황님이 잘 보인다

내머리위에 올라선 사람이 누구냐?



편리하고

안락한 부엌

### 백조표 싱크

### 전북대리점

중앙성당←대리점→박승창 산부인과

① 3631-2

대표: 이영희(메레사)

### 초대합니다

그동안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완산동 대종낙원 맨션의 준공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디 왕림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 대종산업  
대표이사 유종엽(스테파노) 올림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 대종낙원 맨션

### 모델하우스 공개중

장소: 전주시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에드빌론 보임)

### 유한회사 대종산업

본사 2-4871 75-4751

모델하우스 6-2326

(4) 순 정 이



1. 제11차 소년 꾸리아 회의: 8일 오후 2시, 장소-정주(정읍)성당 대상-각 브레시디움 간부
  2. 제3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12일 오후 6시30분, 장소-월명동 성당
  3. 제3기 베델서서 연수자 모집: 원서접수-9일까지, 면접일-23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접수처-교육국
  4. 범 석규(마티아) 신부님 은경축: 14일(월)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 ※ 200주년 기념 영화 "초대받은 성웅들"이 전주 피카디리 극장에서 상영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인철  
전화 ①711~3

1. 금일 미사시간: 오전 6시·오후 7시, 금암동 없음
  2. 복음성서 연구: 11일부터 다시 시작(저녁미사 후)
  3. 사도회: 금일 없음
  4. 중학생 성소주일 행사: 다음주 13일 성체수녀원 방문 및 소풍
  5. 성소 관심자 모집: 고교 남학생 이상, 이번주까지  
※ 다음주 대건신학대학 방문 예정
  6. 상지회 월례회: 9일 저녁미사 후
  7. 벽돌봉헌: 17,234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971,771원 교무금: 629,5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성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기도합시다: 200주년 기념행사,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또한 참가하신분들의 무사히 귀가를 위해
  2. 본당 신자들의 피정: 19~20일 본당내의 모든 신자들 참석하세요
  3. 성전 신축현금 신입서 봉헌식: 1차-20일(간부님들) 사도회·건축 추진위원·각단체·구역봉사자·각구역장님들은 1차 봉헌식에 솔선하여 봉헌합시다
  4. 울뜨레아 모임 연기: 본당 울뜨레아 모임을 다음주(13일)로 연기합니다
  5. 감사합니다: 부활초 봉헌하신분과, 의자 20개를 봉헌하신 청년회장님, 제대꽃을 봉헌하신 각 브레시디움과 각 구역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아파트-108,930원  
효무금: 382,500원 아파트-130,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교황 성하 방한 103위 성인 탄생  
류수택·김진오 형제 교황성하께 영세 축하합니다
  2. 유아세례 및 보례: 13일 오후 2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람
  3. 주일학교 제1지구 성가경연대회: 20일 부모님들의 협조와 성원 바랍니다
  4. 성웅 「김대건」 영화상영: 20일밤 8시30분, 본당에서
  5. 예비자교리: 23일 저녁 8시 개강, 많은 인도 바람
  6. 차주 모임예고: 요셉회·성모회·청년회·중고학생회
  7. 성모동굴 정월 조성: 나무이식에 1일 노력봉사 바람 (27일 축성 예정)
  8. 금주 본당청소: 청년연합회
- 지난주 봉헌금: 521,160원 교무금: 325,000원

(복자)

전화 ①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 ◎ 5월은 성모성월
1.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2. 성모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교리: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김수녀님 지도로 시작
  4. 성가연습: 매미사 10분전에 오시기 바람(신자 전체)
  5. 판공성사 못보신분은 매미사 전후에 보시기 바람
  6. 주일학교 소풍: 13일 10시 집합, 도시락 지참, 우천시-주일학교
  7. 부활때 영세하신분들 모임: 17일 저녁미사 후
  8.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화영 ②송영자  
차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이상인 ②장동주
- 지난주 봉헌금: 122,875원 교무금: 613,000원

(서학동)

신부 ②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반장님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성심회-다음주일 오후 2시
  2.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5시30분, 저녁미사-7시30분, ※ 5월 7일부터(주일도 같음)
  3. 가정방문: 9번(9~10일)
  4. 사순절 저금통 봉헌: 13일까지 봉헌 바랍니다
  5. 사제양성 후원: 신일 요양(1구좌 2만원)
  6. 차주전례: 독서-①김상근 ②박준순
- 지난주 봉헌금: 373,960원 교무금: 254,5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균

1.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2.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1구좌-1천원 83년 미남분 속히 남부 바랍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김희진 ②최중만
- 지난주 봉헌금: 785,450원 교무금: 416,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